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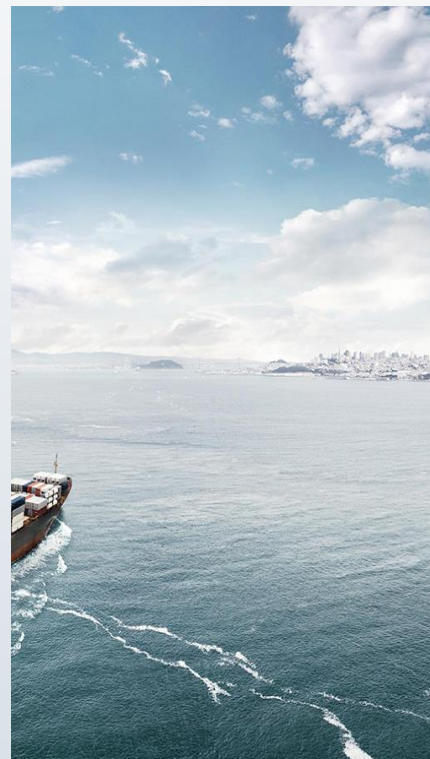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319

**Updated October 6,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세계해운경제학회 학술대회, 2022 년 한국서 개최 예정

세계해운경제학회 학술대회가 오는 2022 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 KMI)은 오는 2022 년에 개최될 세계해운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 IAME) 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28 일 밝혔다.

타노스 팔리스(THANOS PALLIS) IAME 회장은 지난 25 일 서한을 통해 KMI 가 중국 상하이국제해운 연구소(SHANGHAI INTERNATIONAL SHIPPING INSTITUTE, SISI)와 공동으로 제안한 개최의향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통보했다.

이번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운경제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학회인 IAME 의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운 강국으로서 재도약하고 장기적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분야에서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KMI 는 개최의향서에서 학술대회 주요 주제로 '코로나 19(COVID-19)에 따른 해운과 항만에서 도전과 대응방안'을 선정했고 세부 세션을 통해 해운, 항만, 통상, 글로벌 공급사슬, 선원, 선박 등에서 종합적 대응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석학들과 같이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해운, 항만, 국제복합운송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해운과 항만의 관리와 운영방안 등도 논의한다.

2022 년 학술대회는 6 월께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60 여개 국가에서 1,000 여 명의 학자, 전문가, 정책전문가, 해운 및 항만업계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태 원장은 "이번 유치는 KMI 와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국제공모에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이며, 향후 KMI 가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I . ISSUE & TREND

### 2. 해운업계, 코로나 19 위기돌파 빛났지만...대외악재 '척척산중'

국내 해운사들이 코로나 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위기돌파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물동량 회복을 저해하는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있어 하반기 실적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HMM은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인 2만 4000TEU 급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만선 출항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상반기 영업이익 1367억원을 기록하며 2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 HMM은 지난 4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회원사들과 협력함으로써 하반기 실적은 더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SM상선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인 20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0억원이 개선된 수치로 3분기도 영업이익률 18%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 대한해운도 올 상반기 연결기준 76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2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같은 호실적의 배경엔 선박화물운임 급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외 주요 선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배를 항구에 정박시켰다. 이후 각국의 코로나 19 봉쇄조치 해제가 잇따르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고, 컨테이너선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운임이 오르게 된 것이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30일 기준 1443.54포인트를 기록했다.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노선의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것으로 1300선을 넘은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국제유가 하락으로 선박 운항 비용절감 효과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선 해운업계 호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를 앞둔 데다 글로벌 선사들이 공급을 대폭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I . ISSUE & TREND

문제는 이 같은 고운임 고수요 구조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호황기를 거치면서 전세계 선복량은 급증했지만 물동량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저운임 기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달 30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해상 물동량 감소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1%)보다 더 큰 4.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 19 사태는 해운업계에 전대미문의 영향을 끼쳤고, 시황이 개선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의 본국 회귀 확산으로 완제품의 장거리 운송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품의 경박단소화도 해상운송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설상가상으로 내달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돼도 자국중심주의와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외 블랙시트 여파,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인한 무역환경 불확실성도 물동량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혜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펴낸 '해운 서비스 수출 부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됐다"면서 "국내 선사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물량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제조업 설비 자동화와 미중갈등으로 중국의 생산기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항만으로 기항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3. 4분기 국제유가 전망, "수요회복·코로나 재확산이 관건"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4분기 유가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배럴당 40달러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원유수요와 산유국 감산 등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5.9%(2.17달러) 오른 39.2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5.14%(2.02달러) 상승한 41.29달러를 기록했다.

## I . ISSUE & TREND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제유가는 지난 4월 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한 뒤 8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40달러대 박스권을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면서 원유수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탓에 유가는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이 최근에는 원유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퇴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유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가격은 이날까지 종가기준 40달러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난 8월 고점대비 약 9.6% 빠졌다. 브렌트유 또한 같은 기간 10% 넘게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유가가 40달러 중반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프란시스코 블란치 책임은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원유시장은 하루 490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블란치 책임은 "하방 리스크의 경우 코로나 19의 2차 파동이 1순위"라며 전염병 재확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불안은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유가폭락을 야기시킨 핵심 요인이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 역시 "코로나 19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받는 자산은 원유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30달러대 초반까지 추락하기 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지역에서는 코로나 19 2차 유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통계를 보면 코로나 19 중대 발병 상황에서 제외된 국가는 유럽 전체에서 4개국에 불과하다.

‘중대 발병’ 기준은 최근 7일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환자수가 20명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독일(18.4명), 핀란드(15.5명), 키프로스(14.6명), 노르웨이(13.9명) 등만 이 기준 이하의 발병률을 보였다. 반면 체코공화국은 10만명당 환자가 167.6명, 네덜란드는 140.3명, 프랑스는 120.3명에 달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4월의 첫 대유행 당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I . ISSUE & TREND

이와 함께 올 겨울 날씨 역시 4분기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적용됐다. 블란치 책임은 "올 겨울이 추울 경우 원유시장에 숨통이 틈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증류물 연료의 지속적인 잉여를 고려했을 때 따뜻한 겨울이 하방 리스크 2순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10 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의 감산이행률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RBC 캐피탈의 헬리마 크로프트 원자재 전략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원유시장에 대한 심각한 역풍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OPEC 은 감산 이행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내게 큰 관심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2차 파동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OPEC에서도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PEC 회원국의 9 월 감산 이행률은 8 월의 100%에서 101%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산에 면제된 리비아와 이란의 산유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OPEC 전체로 봤을 때 9 월 생산량은 전월대비 하루 16 만 배럴 높은 2438 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의 지난 9 월 원유생산량은 과거 6 월 대비 하루 200 만 배럴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와 이란의 생산량은 각각 하루 7 만 배럴, 12 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 동부를 지배하고 있는 반군이 원유 생산시설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는데, 가뜰이나 침체된 원유시장에서 공급량이 더욱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란치 전략가는 "리비아의 산유량이 본격화되면 하루 100 만 배럴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는 시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여분의 100 만 배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유수요가 계속 부진할 경우 OPEC+는 감산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PEC+는 코로나 19 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과 유가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하루 770 만 배럴어치의 감산을 이행하고 있고 내년 1 월부터는 감산량이 하루 580 만 배럴로 줄어들 예정이다.

크로프트 전략가도 "(감산 연장 결정은) 어렵겠지만 산유국들은 시장에 하루 200 만 배럴어치 더 늘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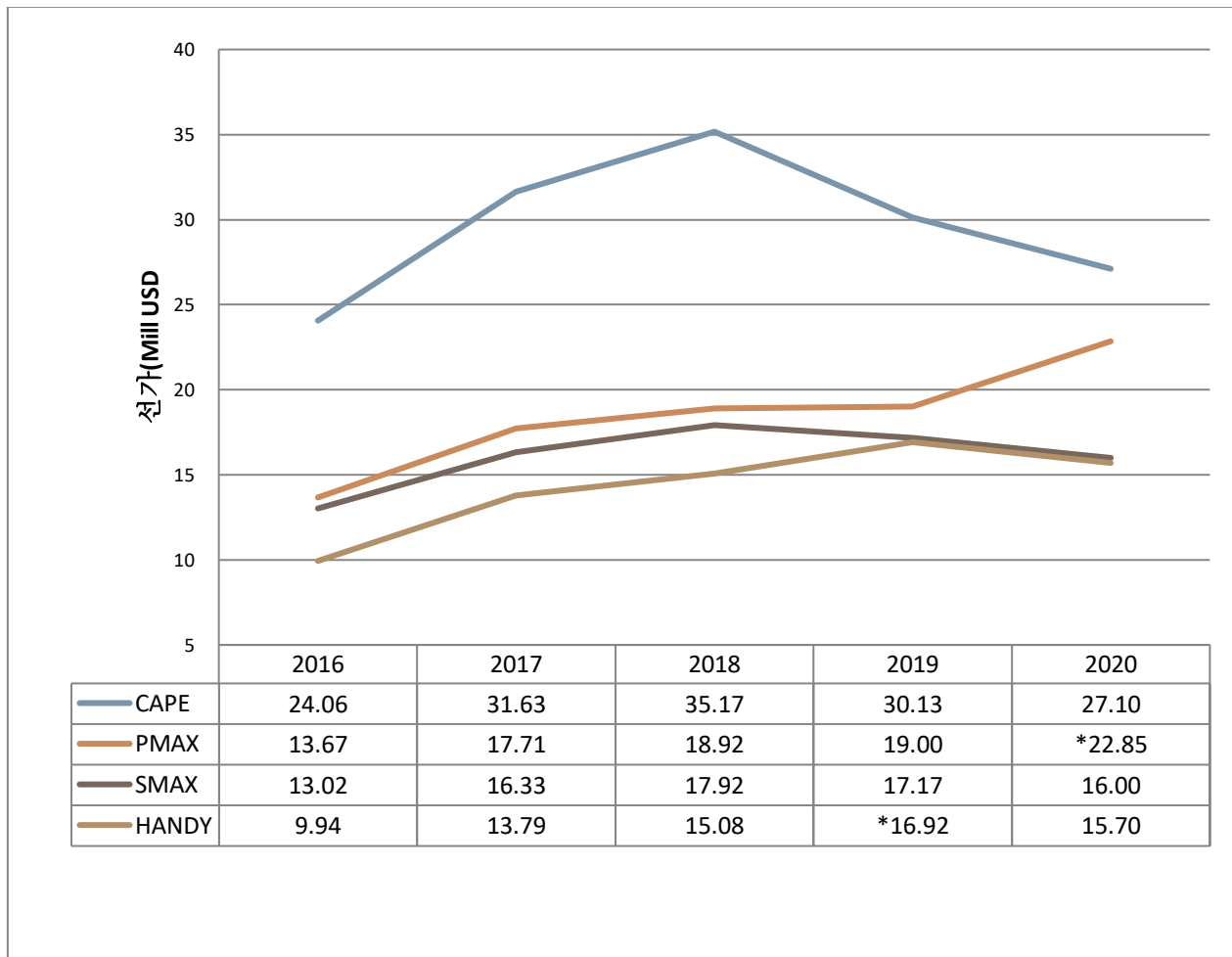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b>Capesize 180K</b>	24.06	31.63	35.17	30.13	27.10
	-24.99%	31.43%	11.20%	-14.34%	-10.04%
<b>Kamsarmax 82K</b>	13.67	17.71	18.92	19.00	*22.85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0.26%
<b>Supramax 58K</b>	13.02	16.33	17.92	17.17	16.00
	-16.91%	25.44%	9.69%	-4.20%	-6.80%
<b>Handysize 37K</b>	9.94	13.79	15.08	*16.92	15.70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7.19%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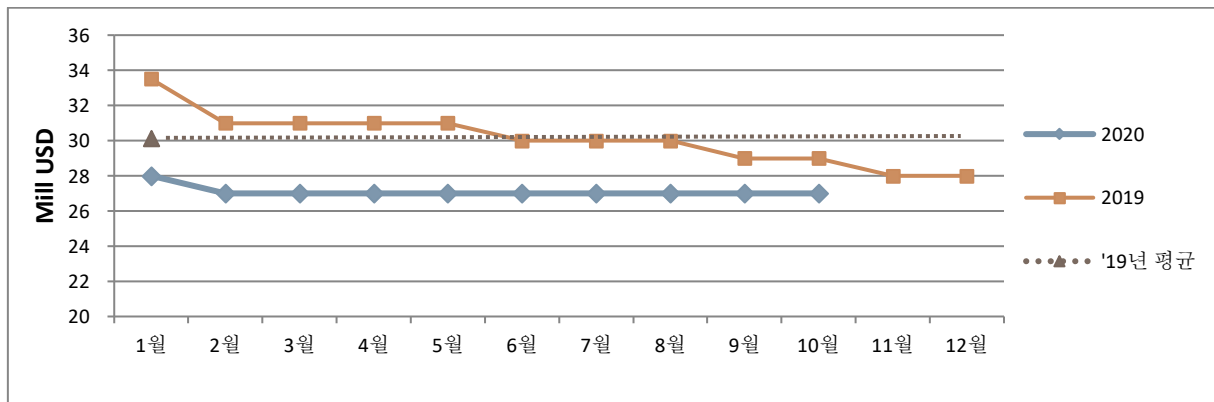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10
		전월대비	0.0%	-3.6%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12.9%	10.0%	10.0%	10.0%	-6.9%	-6.9%			10.0%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3.00	22.50	22.50			22.85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2.2%	0.0%	2.2%	-2.2%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18.4%	18.4%	21.1%	18.4%	18.4%			20.3%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5.50	15.50	15.50			16.00
		전월대비	0.0%	-2.9%	0.0%	0.0%	-3.0%	-3.1%	0.0%	0.0%	0.0%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8.8%	-8.8%	11.4%	11.4%	-8.8%			-6.8%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4.50	14.50	14.75	14.75			15.70
		전월대비	3.0%	0.0%	0.0%	0.0%	-8.8%	-3.2%	-3.3%	0.0%	1.7%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11.8%	14.7%	14.7%	13.2%	13.2%			-7.2%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29.00	29.00	28.00	28.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50	16.50	16.92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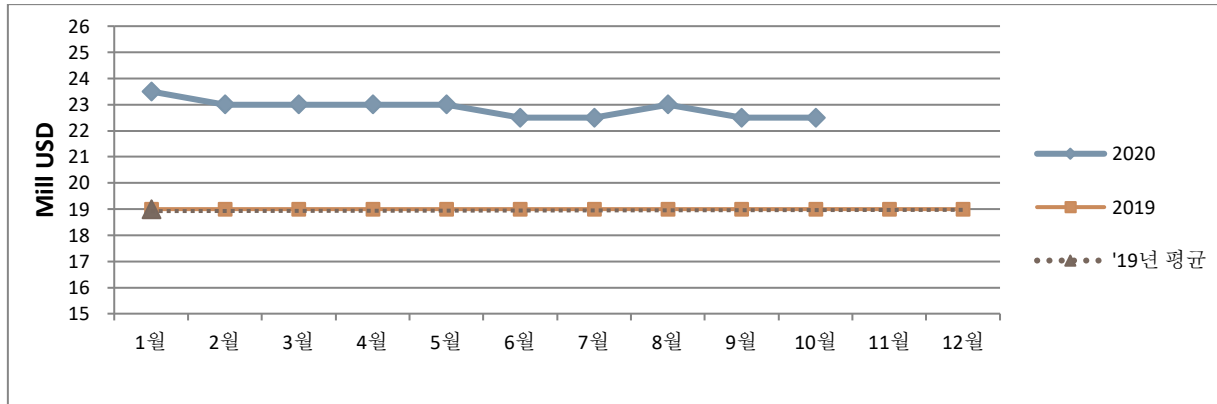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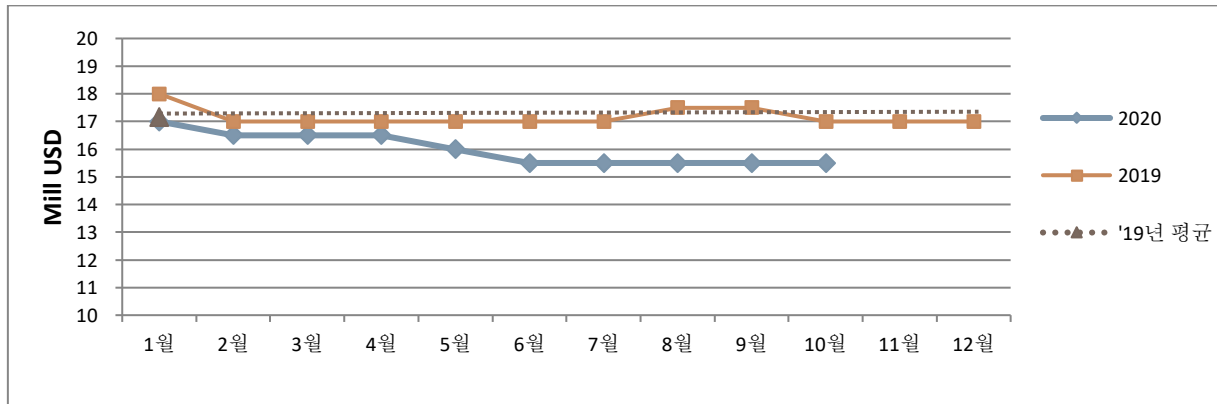


##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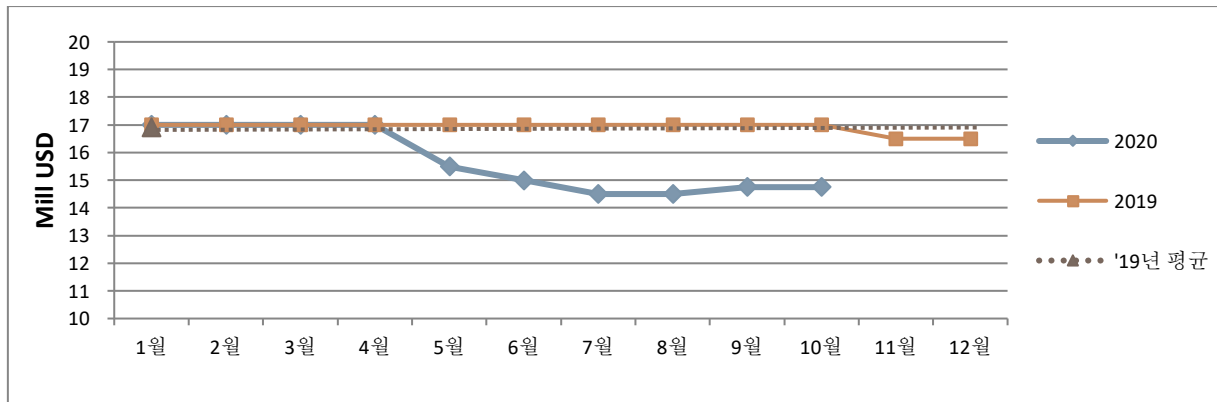
###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NAVIOS GEM	181,336	2014	JAPAN	B&W		51	Undisclosed buyer
BC	NAVIOS VICTORY	77,095	2014	JAPAN	B&W			
BC	E.R. AMERICA	179,570	2010	ROMANI A(KOR)	B&W		20.75	Greek buyers (Tsakos), SS/DD freshly passed, BWTS & scrubber fitted
BC	GIUSEPPE BOTTIGLIERI	175,243	2011	CHINA	B&W		15.7	U.K. buyers (Zodiac), SS/DD due December 2020
BC	SBI ROCK	82,057	2016	CHINA	B&W		18.1	Greek buyer (Alpha Bulkers), SS/DD due
BC	SBI SOUSTA	81,175	2016	CHINA	B&W		18.5	Undisclosed buyer, SS/DD due, BWTS fitted
BC	TRITON HAWK	78,833	2010	JAPAN	B&W		13.8	Greek buyer (Castor), SS passed, BWTS fitted
BC	HANTON TRADER I	63,518	2014	CHINA	B&W	C 4x35t	15.9	Chinese buyer
BC	ELLIE	57,045	2011	CHINA	B&W	C 4x30t	8.4	undisclosed buyer
BC	DIMI	57,034	2011	CHINA	B&W	C 4x30t	9.4	
BC	SSI NEMESIS	56,023	2005	JAPAN	MITSU	C 4x30t	7.5	Undisclosed buyer
BC	VEGA LIBRA	53,743	2010	CHINA	B&W	C 4x30t	7	undisclosed buyer, ss/dd due, BWTS included
BC	GENCO NORMANDY	53,617	2007	CHINA	B&W	C 4x35t	5.85	undisclosed buyer
BC	HONG KAI	45,654	1996	JAPAN	B&W	C 4x30t	2.6	Chinese buyer
BC	CAPETAN COSTIS	34,000	2011	KOREA	B&W	C 4x30t	8.25	Greek buyer (Kouros)
BC	IVS TRIVIEW	32,282	2009	JAPAN	MITSU	C 4x31t	7	Undisclosed buyer
BC	APOLLONIA	29,943	2002	KOREA	B&W	C 4x30t	4.1	Undisclosed buyer
BC	LAGONDA	28,186	2001	JAPAN	MITSU	C 4x30t	3.5	Undisclosed buyer, SS/DD due Apri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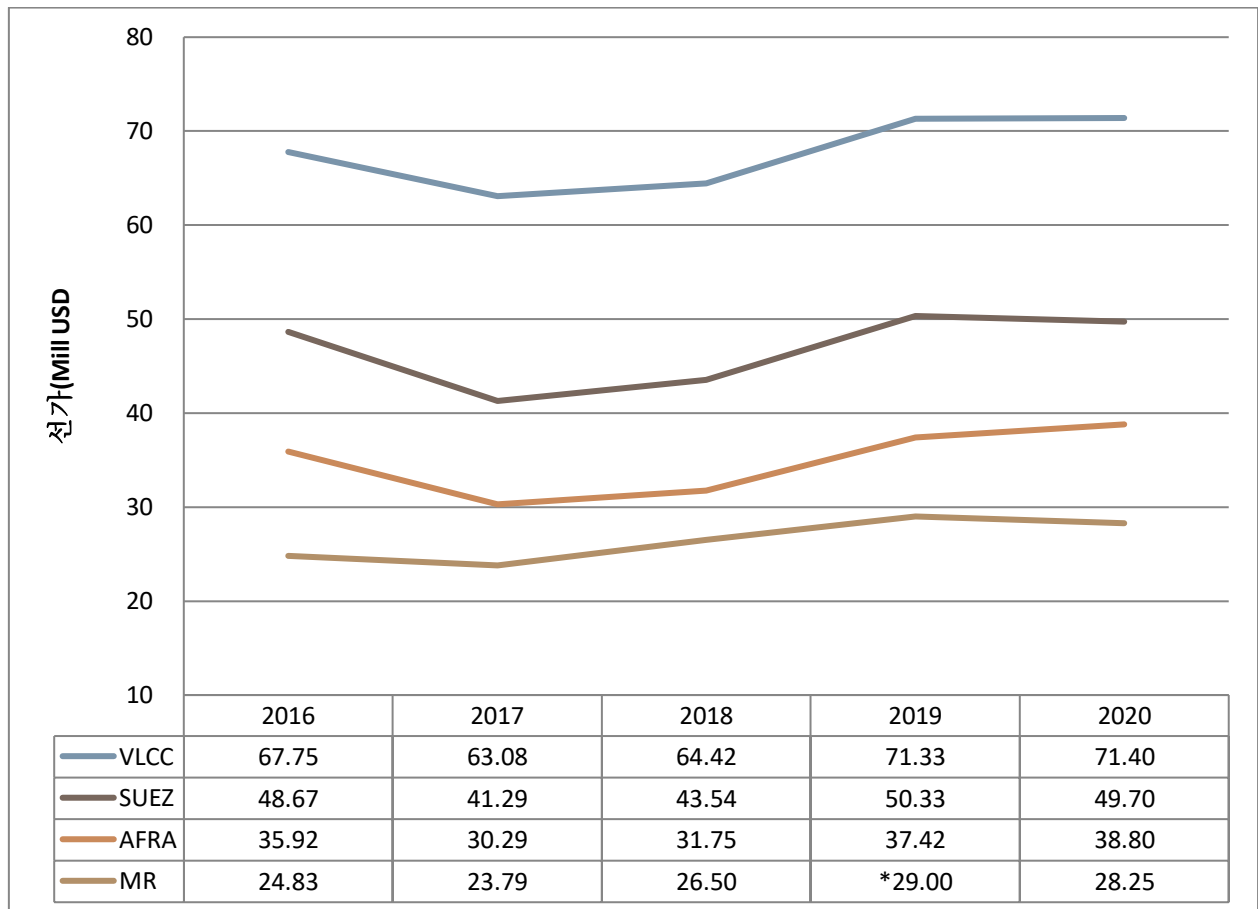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1.40
	-16.15%	-6.89%	2.11%	10.73%	.09%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49.70
	-18.34%	-15.15%	5.45%	15.60%	-1.26%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38.80
	-21.24%	-15.66%	4.81%	17.85%	3.70%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28.25
	-10.35%	-4.19%	11.38%	9.43%	-2.59%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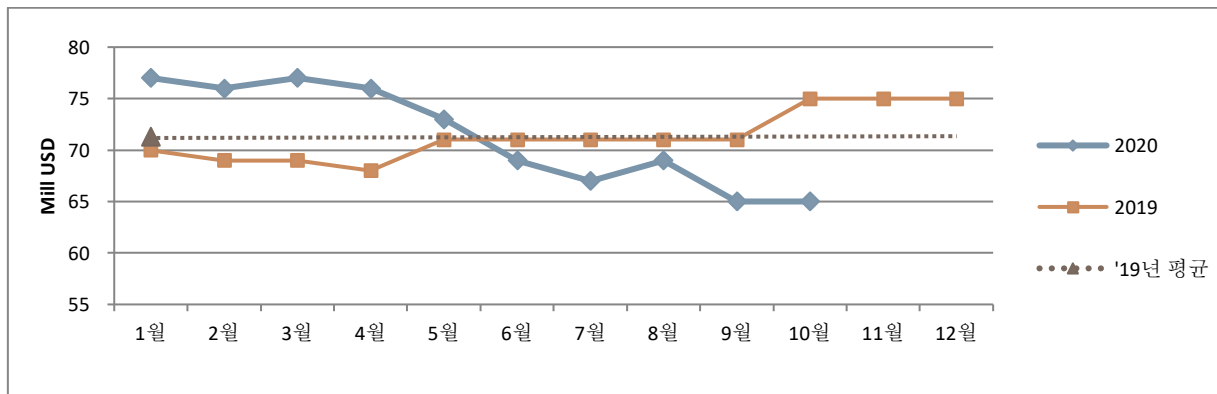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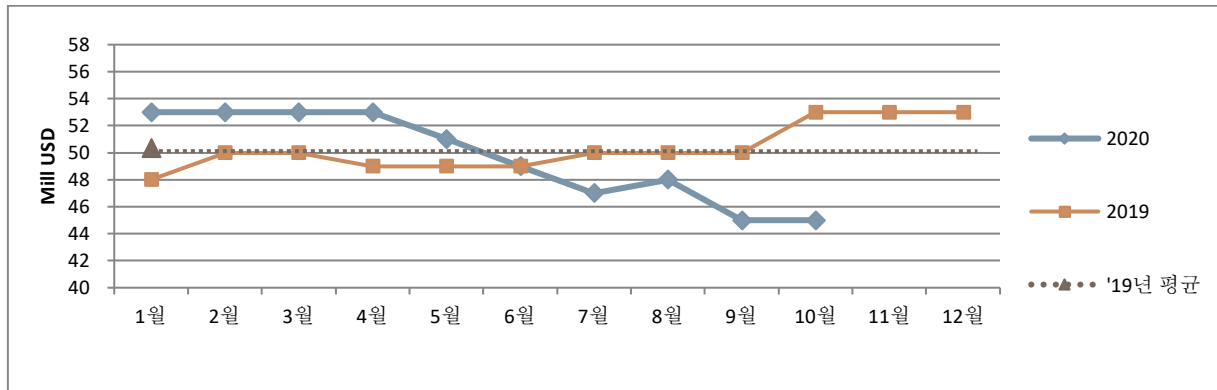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7.00	69.00	65.00	65.00			71.40
		전월대비	2.7%	-1.3%	1.3%	-1.3%	-3.9%	-5.5%	-2.9%	3.0%	-5.8%	0.0%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2.8%	-5.6%	-2.8%	-8.5%	-13.3%			0.1%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7.00	48.00	45.00	45.00			49.70
		전월대비	0.0%	0.0%	0.0%	0.0%	-3.8%	-3.9%	-4.1%	2.1%	-6.3%	0.0%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0.0%	-6.0%	-4.0%	-10.0%	-15.1%			-1.3%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6.00	36.00	35.00	35.00			38.80
		전월대비	0.0%	3.7%	0.0%	0.0%	-5.9%	-6.3%	-4.0%	0.0%	-2.8%	0.0%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4%	-5.3%	-5.3%	-7.9%	-14.6%			3.7%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6.50	26.50	26.00	26.00			28.25
		전월대비	0.0%	3.3%	0.0%	-3.2%	-6.7%	-1.8%	-3.6%	0.0%	-1.9%	0.0%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5.2%	-11.7%	-11.7%	-10.3%	-13.3%			-2.6%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5.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3.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41.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30.00	29.00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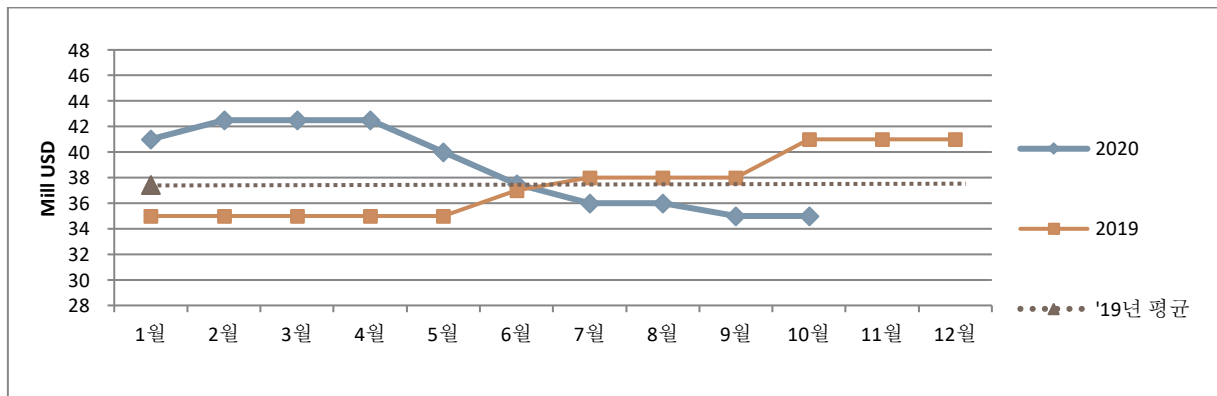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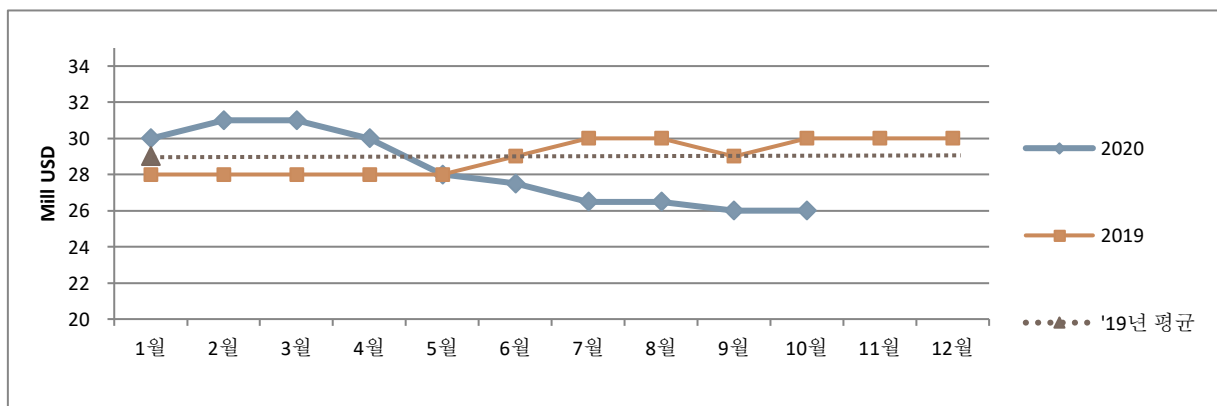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EAWAYS MULAN	318,518	2002	KOREA	B&W		23.5	Far Eastern buyer
TANKER	SEAWAYS ROSALYN	317,972	2003	KOREA	B&W		25	Far Eastern buyer
TANKER	TAKAOKA	311,061	2011	JAPAN	WART		45	Greek buyer, SS due August 2021
TANKER	TOKITSU MARU	305,484	2011	JAPAN	MITSU		45	Greek buyer (Dynacom), SS/DD due April 2021, old sale
TANKER	CHRYSSI	298,920	2000	JAPAN	B&W		22	undisclosed buyer
TANKER	ALTEREGO II	159,924	2002	KOREA	B&W		16	undisclosed buyer
TANKER	OCEAN ODYSSEY	108,942	2008	CHINA	B&W		20	Indonesian buyers (BUANA LINTAS LAUTAN)
TANKER	OCEAN LADY	108,942	2008	CHINA	B&W		20	
TANKER	MINERVA CONCERT	105,845	2003	KOREA	B&W		13	Vietnamese or Middle Eastern buyer
TANKER	NORD SAKURA	45,953	2012	JAPAN	B&W		16.2	Greek buyer
TANKER	HEREDIA SEA	7,550	2008	CHINA	Chinese		3	Undisclosed buyer
OIL /CHEM	PACIFIC SAPPHIRE (stst)	19,814	2008	JAPAN	B&W		11.8	Dutch buyers (ACE)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KOTA PEMIMPIN	132,736	2018	CHINA	WART	11923		89	Canadian buyer (SEASPAN)
CONT	KOTA PETANI	132,712	2018	CHINA	WART	11923	TEU		



## III. TANKER

CONT	RIO BLACKWATER	68,121	2000	KOREA	SULZ	5447	TEU	10.1	Greek buyer
CONT	SINAR SANGIR	21,937	2008	JAPAN	B&W	1708	TEU	6.5	Chinese buyers
CONT	SINAR SUBANG	21,935	2008	JAPAN	B&W	1708	TEU	6.5	
MPP	MARMACTAN	11,149	2008	CHINA	MAK	667	TEU	3.8	Undisclosed buyer
MPP	ONEGO BAYOU	10,758	2007	CHINA	MAK	671	TEU	3.8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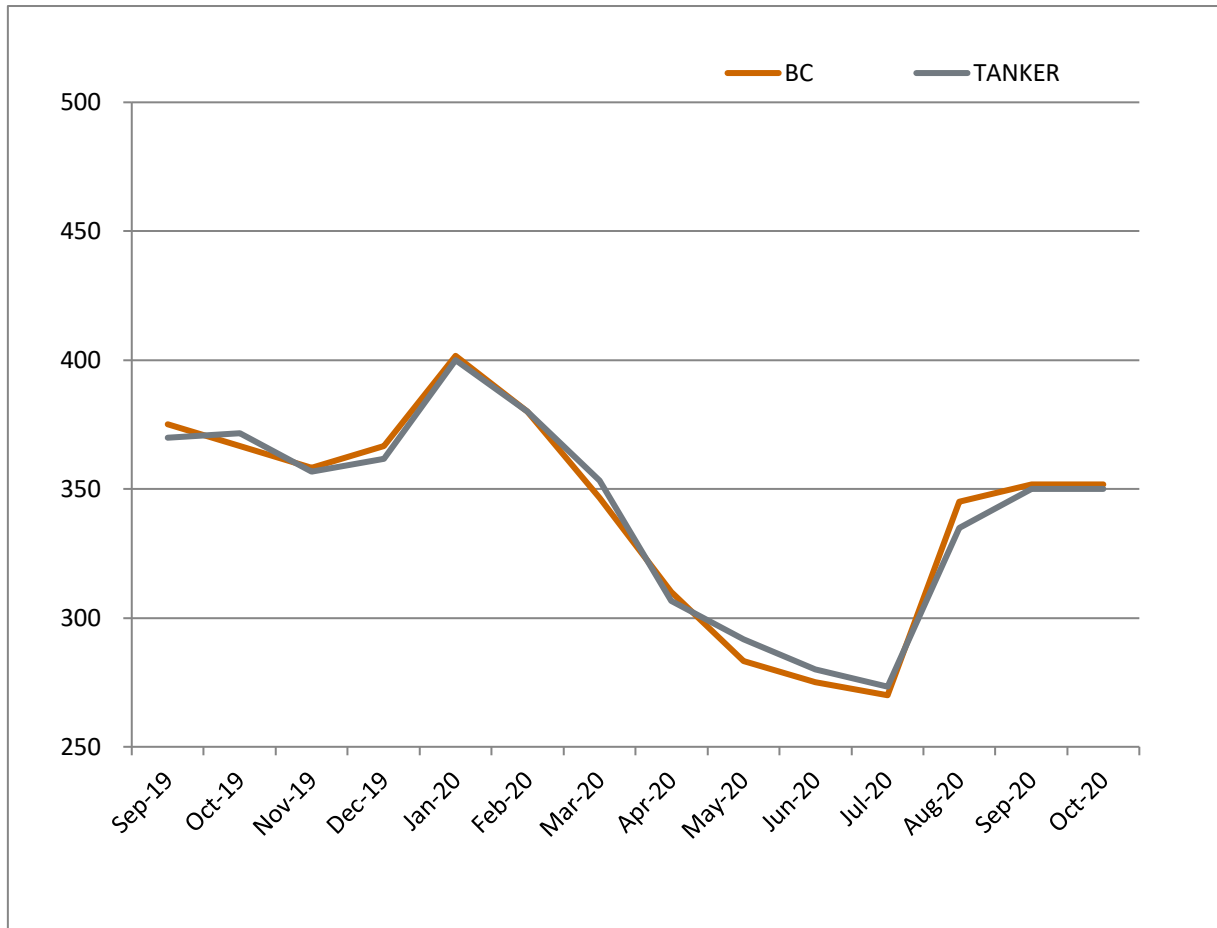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0 월		2020 년 10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32.00	-16.2%	371.67	350.00	0.0%	-5.8%
BC	440.63	18.8%	398.75	-9.5%	331.50	-16.9%	366.67	351.67	0.0%	-4.1%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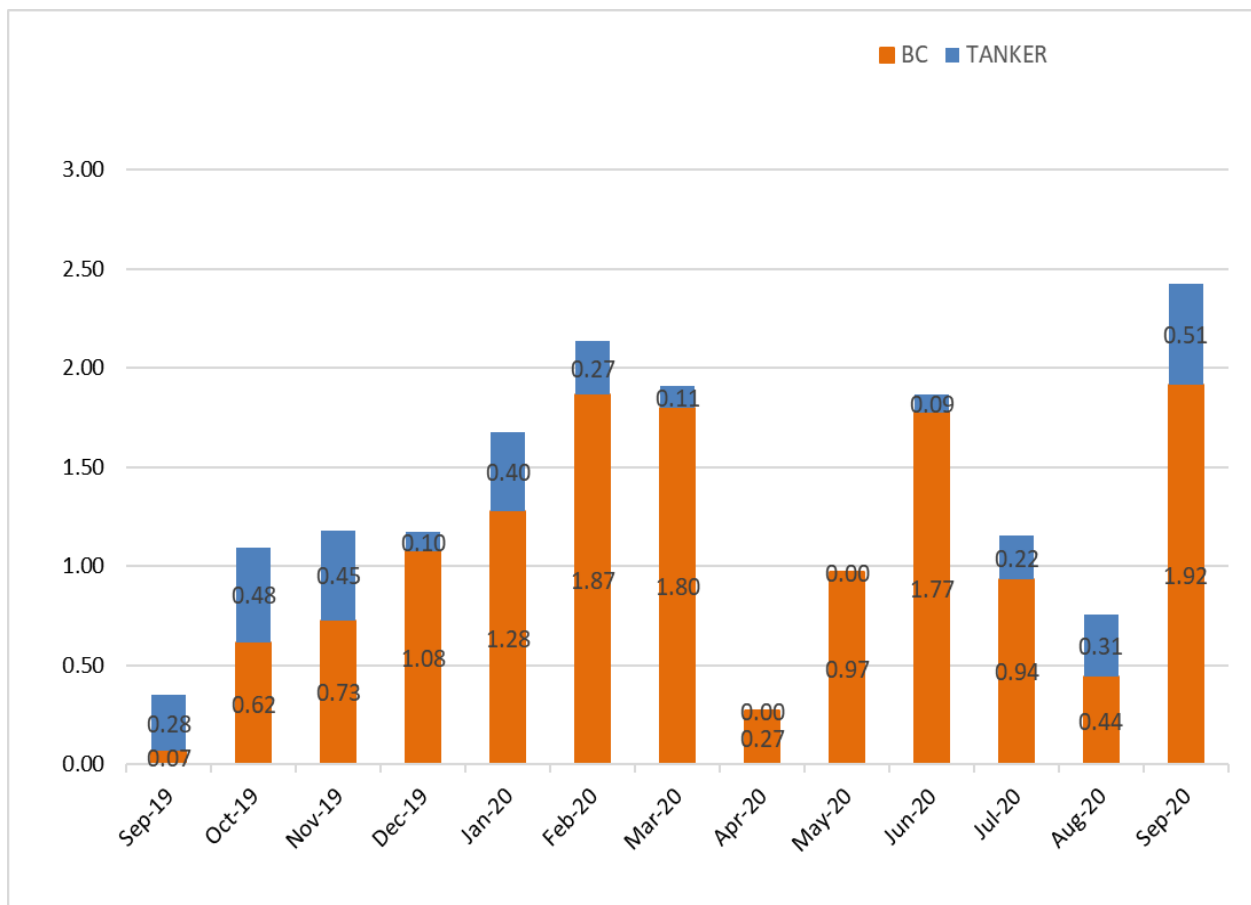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9 월		2020 년 9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54	97	1.91	54.2%	60	61.9%	0.28	7	0.51	79.6%	11	57.1%
BC	7.45	116	11.24	151.0%	116	100.0%	0.07	4	1.92	2,847.7%	23	475.0%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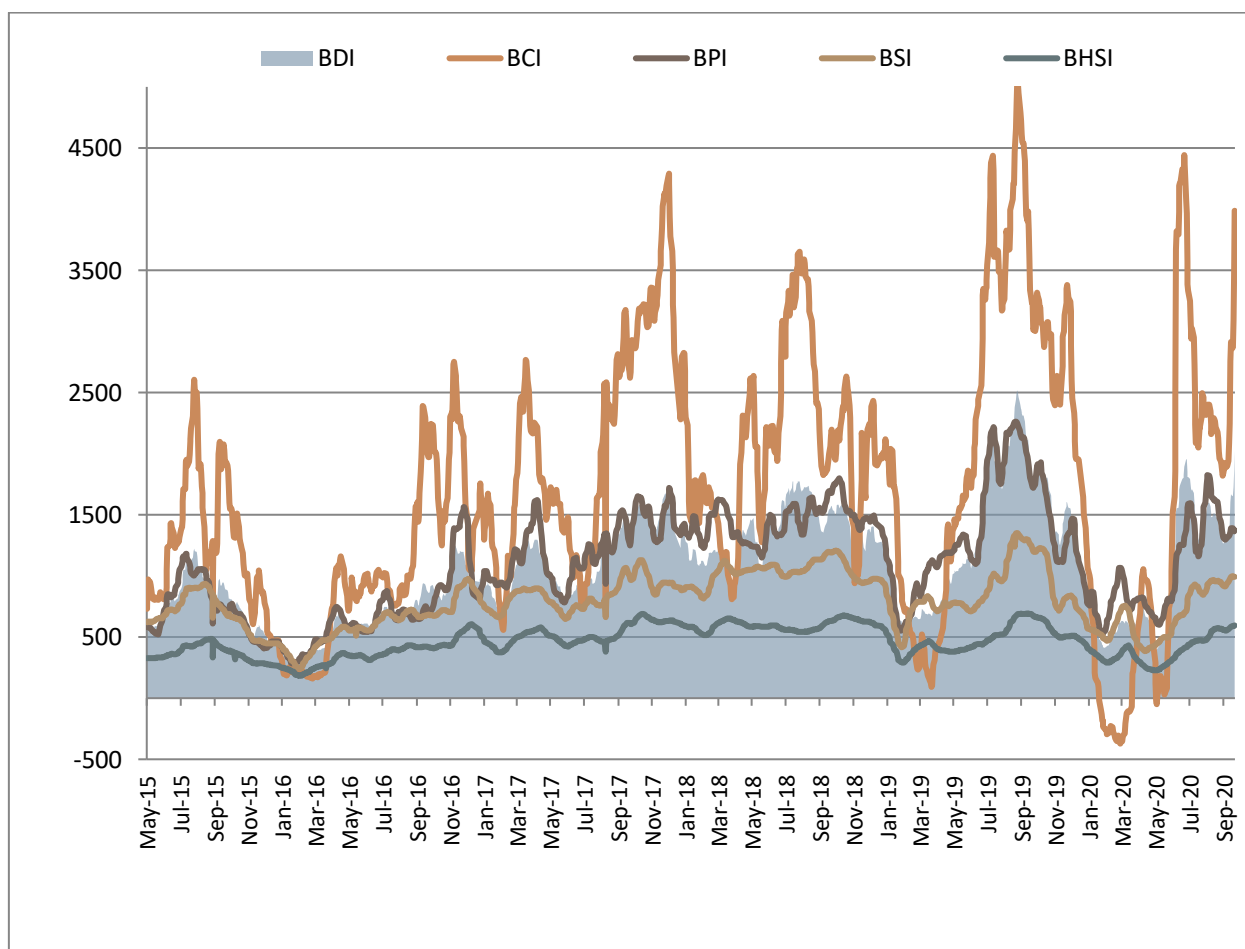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JANICE N	264,340	38,856	1995	JAPAN	MITSU	340	BANGLADESH, HKC green recycling
BC	PANAMAX ENERGY	74,083	10,500	1998	JAPAN	SULZ	385	BANGLADESH
BC	MISSISSIPPI ENTERPRISE	37,244	8,077	1980	JAPAN	SULZ	317	AS IS Port Suez, HKC green recycling
CONT	PL YUI LAAM	12,576	5,248	1994	POLAN D	B&W	368	BANGLADESH
MPP	SEVASTOPOL	8,723	3,319	2001	CHINA	WART	315	BANGLADESH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0-10-02	2020-09-2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2020	1667	▲353.00	2518	290
BCI	3987	2915	▲1,072.00	5043	-372
BPI	1373	1390	▼-17.00	2262	282
BSI	991	992	▼-1.00	1351	243
BHSI	593	585	▲8.00	692	183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30.00	▼-5.50	296.50	▼-5.00	307.00	▼-3.50
MGO	347.00	▼-2.00	305.50	▼-17.00	347.00	▲1.00
LSMGO	341.50	▲1.00	312.50	▼-2.50	-	-
VLSFO	262.50	▼-8.00	243.00	▼-8.00	251.00	▲2.00

❖기준일 : 10 월 2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0-10-05	2020-09-25	CHANGE
미국 달러	1169.50	1170.30	▼-0.80
일본 엔(100)	1108.48	1110.18	▼-1.70
유로	1370.19	1366.09	▲4.10
중국 위안	171.37	171.54	▼-0.1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STL NEWS & INFORMATION

### [시사상식]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

일과 주거에 있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한다. 이전의 유목민들이 쫓이나 사회주변부의 문제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디지털 노마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21세기는 디지털 장비를 갖고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 [관련기사] 관광국들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하세요"...디지털 노마드 공략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재택근무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동제한으로 단기 관광 여행객이 급감하자, 세계적 관광국들이 이색적인 장기 관광 비자 및 프로그램들로 디지털 노마드를 유인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에 따르면, 단기 관광객들이 급감해 관광 수익이 급감한 국가들이 장기 체류하며 재택 근무할 디지털 노마드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블룸은 미국 근로자 중 42%가 현재 풀타임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재택근무가 반영구적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북은 2021년 중반까지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트위터는 아예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직원 100%의 사무실 복귀는 힘들 것이라며, 60~70% 가량의 인력이 순환근무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관광국들은 이러한 추세에 주목해 낮은 코로나 19 감염률, 낮은 생활비, 매력적인 자연 환경과 생활양식 등을 내세워 장기 체류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서인도 제도의 영국령 앵귤라 섬은 지난달 21일부터 재택근무할 체류자들의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 VI. STL NEWS & INFORMATION

앵귤라 관광이사회는 지난달 19 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라 불리는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은 연장된 체류 비자로 이 곳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확진자가 3 명에 불과한 앵귤라는 감염률이 0.2% 미만인 저위험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신청을 우선시하고 있다.

앵귤라에 3 개월 체류하는 비용은 인당 1000 달러(약 116 만원), 4 인 가족의 경우 1500 달러(약 174 만원) 수준이다. 장기 체류일 경우 두 배가 되는 입경료에는 두 차례의 코로나 19 검사, 디지털 근로 허가서 및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서인도 제도 영국 연방 내 독립국인 바베이도스는 1 년짜리 체류 비자를 내주고 있다. 특히 신청 확인이 되면 5 영업일 내 비자가 발급되는 등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12 개월 바베이도스 웰컴 스탬프'라 불리는 이 비자는 지난 6 월 30 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번 주까지 1350 명 이상이 신청했다. 비자 신청자의 40%는 미국인이다.

레스토랑과 카페, 공공 도서관, 공원 등 바베이도스 섬 전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

북대서양 영국령 섬인 버뮤다는 '워크 프롬 홈'이라는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버뮤다 외 지역에서 채용된 여행객이나 대학 수준의 프로그램 수강자, 또는 지속적 연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과 반려동물 동반 체류가 가능하며, 자녀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제이슨 헤이워드 버뮤다 노동부 장관은 "이들 방문객은 버뮤다에 거주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않고도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독립한 신생국 조지아는 지난 7 월 말부터 미국 등 95 개국에서 재택근무자를 받고 있다. 지난달 5 일 기준으로 약 2700 명이 '리모틀리 프롬 조지아'라는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무비자로 360 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

단 신청자는 월 소득이 2000 달러(약 232 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가 비용으로 호텔에서 12 일 간 거리를 해야 한다.

## VI. STL NEWS & INFORMATION

---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디지털 사회로 꼽히는 에스토니아는 12 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비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쉥겐 조약 가입국 외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신청자에게만 발급되며, 신청자는 이전 6 개월 간 월 소득이 3504 유로(약 481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비자로 에스토니아의 국경 이동 제한을 우회하지 못한다.

[출처 : 뉴스핌]



##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